

梅鼎祚의 『靑泥蓮花記』에 관한 연구*

朴貞淑**

〈目 次〉

1. 들어가며
2. 梅鼎祚의 생평
3. 『靑泥蓮花記』의 편찬 목적
4. 『靑泥蓮花記』의 체재 및 특징
5. 『靑泥蓮花記』의 편찬 배경
6. 나오면서

1. 들어가며

『청니연화기』는 매정조가 명나라 萬曆 28년(1600)에 완성하고, 30년(1602)에 출간한 책이다. 이것은 한나라부터 명나라까지의 기녀에 관한 기록을 각종 문헌 속에서 발췌하여 엮은 것으로서, 일종의 기녀 전기집이라고 할 수 있다. 명나라 시기에는 출판업이 급속히 성행하면서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될 수 있는 외재적 조건뿐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사상의 기풍 속에서 기녀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많이 창작되는 내재적 조건도 갖추어졌다. 이에 명나라 이전 시대에는 보기 드문 기녀 관련 전문서적이 다양하게 출간될 수 있었는데, 『청니연화기』 이외에도 曹大章의 『燕都妓品』·『蓮臺仙會品』·『秦淮女士表』·『廣陵女士殿最』, 張夢徵·朱元亮의 『靑樓韻語』, 潘之恒의 『金陵妓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5종의 기녀 관련 전문서적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특징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초빙조교수

이 있다. 즉 기녀의 등급을 나누고 이른바 ‘名妓’를 가려 뽑아 선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대에 이러한 서적이 연이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기녀에 대한 오락적 호기심이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출간물이라고 보기에는 명기에 대한 편찬자 나름대로의 독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청니연화기』의 편찬 목적과 그 체제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편찬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녀 관련 전문서적이 왜 많이 출간되었는지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니연화기』의 주요 판본에는 명나라 만력 간본,¹⁾ 청나라 宣統 3년(1911) 북경 自强書局 石印本(이 판본은 ‘繪圖青泥蓮花記’라고도 함), 1915년 상해 廣益書局 排印本, 『中國文言小說參考資料』에 수록된 嘉惠堂 黑格鈔本 등이 있다. 그 외 1988년 中州古籍出版社에서 출간한 선통 석인본의 교점본이 있고, 1998년 黃山書社에서 출간한 陸林의 교점본이 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통행본으로 사용되는 육림의 교점본을 토대로 하되, 『회도청니연화기』(『明清筆記史料』에 수록, 2000)를 참고로 활용하기로 한다.

2. 梅鼎祚의 생평²⁾

『청니연화기』의 편찬자는 매정조(1549-1615)다. 그는 명대의 시인이자 희곡가로 이름이 알려졌고, 宣城(지금의 安徽省) 사람이다. 자는 禹金(또는 彦和라고도 함)이고, 호는 汝南, 勝樂道人, 梅眞子, 太一生, 無求居士, 千秋鄉人, 蟬隱 등

1) 현재 만력 30년에 간행된 鹿角山房刻本이 중국의 國家圖書館、戲曲研究院、上海圖書館 및 旅大市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2) 매정조의 생평과 관련해서는 (명) 過庭訓의 『本朝分省人物考』(續修四庫全書, 第536冊), (청) 錢謙益의 『列朝詩集小傳』(丁集下), (청) 吳肅公의 『明語林』, 『康熙寧國府志』 및 『江南通志』(欽定四庫全書, 史部, 地理部, 卷148) 등의 기록과 徐朔方, 『梅鼎祚年譜』, 葛欣榮, 『宋清之際宣城梅氏家族研究』(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李慈瑤, 『梅鼎祚研究四題, 梅鼎祚年譜補正』(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등을 참조했다.

이다.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지었고 자라서는 沈君典과 이름을 나란히 했는데, 일찍이 그의 부친 梅守德과 심군전의 부친 沈寵 등이 강학하는 고향의 서원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 매수덕은 자가 純甫이고 세칭 宛溪先生이라 불렸다. 일찍이 嚴崇의 포악한 행태를 비판하다가 戶部主事の 관직에서 좌천당해 紹興知府, 山東提學副使, 雲南參政 등을 지내다가 노모의 봉양을 핑계로 귀향했다. 그 후 寧國府知府로 부임해있던 지리학자 羅汝芳과 함께 志學書院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며 선성 지방의 학술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寧國府志』, 『宣風集』, 『宛陵人物傳』 등의 편찬은 선성의 역사, 인물, 시문 등을 정리하고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매정조는 부친을 도와 이러한 서적의 편찬에 참여했는데, 후일 그가 선성 지역의 역대 시인의 작품을 모아 『宛雅初編』 8권 등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학문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매정조는 칠삭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약하고 병이 잦았다. 게다가 그가 어릴 때 두 형이 요절한 데다가 유약하여 그의 부친은 집안의 필목을 모두 태워 버리고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정조는 천성적으로 영민하고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숨겨놓고 묵송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조정의 부정부패한 상황을 익히 잘 아는 부친은 매정조가 과거시험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태학에서만 학업을 배우도록 권했다. 이에 그는 16세에 관으로부터 녹미를 지급받은 廩生으로서 수학하면서 과거공부 보다는 고문 공부에 열중하며 한 순간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전한다.

하지만 매정조는 부친의 권고에 따라 마냥 태학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부친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얻어 집을 떠나 남경을 유람하며 수많은 문인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王世貞, 王道昆 등 당시의 저명한 문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강남을 유람했다. 또 焦竑, 馮開之, 趙玄度와 3년에 1차례씩 남경에서 만나기로 정해놓고 서로 수집한 책을 교정하기도 했다. 문장이 심원하고 박식하여 사대부들이 그를 좋아했으며, 당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남경에서 보낸 젊은 시절의 생활이 후일 『청니연화기』를 완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매정조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과거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벼슬을 하고자 상당히 애를 썼다고 볼 수 있다. 매정조는 16세 때 府生員이 되어 19세부터 향시에 참여했는데, 모두 8차례 낙방했다. 그 무렵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치아가 힘이 없고 마음고생에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누차 때를 만났다가 누차 실패하여 결국에는 나뭇가지처럼 여위었네.(齒不待力, 髮不勝心, 屢遇屢躓, 終焉枯槁而已.)”³⁾라고 한탄했는데,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그의 열망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42세에 恩貢으로 北監에 들어가 그 이듬해 다시 順天鄉試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이때도 역시나 낙방함으로써 관직에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것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과거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佛道에 심취했다. 또 당시의 內閣首輔인 申時行 등이 천거하기도 했으나, 사양하고서 은거하며 서적을 정리하고 편찬하는 일에 몰두했다. 부친의 권고가 아닌 현실의 한계를 몸소 자각한 귀로인 것이다.

매정조는 평생동안 많은 책을 모아 天逸閣에 소장하고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한 순간도 책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매진했다고 한다. 특히 각종 서적의 다른 판본이나 흩어져 일부 누락된 것을 모아 교감하여 편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매 글자마다 깊이 생각하고 다듬으며 신중하게 책을 편찬했다. 『청니연화기』 외에도 『漢魏八朝詩乘』, 『古樂苑』, 『唐樂苑』, 『歷代文紀』, 『書記洞繪』, 『釋文記』, 『履齋遺稿』, 『宛雅』 등을 편찬했으며, 자신의 시문 집인 『鹿裘石室集』, 『梅金禹詩草』를 비롯하여 전기 『玉合記』, 『長命縷』, 소설 『才鬼記』, 잡극 『昆侖奴』 등을 남겼다.

3. 『靑泥蓮花記』의 편찬 목적

『청니연화기』는 매정조가 남경을 유람하며 당시의 명기인 楊美, 薛素素, 徐翻翻, 王驚鴻 등과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기녀의 자료를 대거 수집하여 편찬

3) 梅鼎祚, 「鹿裘石室集」, 書牘第七, 548쪽(續修四庫全書, 集部): 齒不待力, 髮不勝心, 屢遇屢躓, 終焉枯槁而已.

한 책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정조는 젊은 시절 수차례 과거에 낙방한 이래 42세에 북감에 들어가기까지 남경에서 유람하며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남경은 경제와 문화가 번성한 곳으로 명기들이 군집해 있던 곳이다.

『청니연화기』는 만력 28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매정조의 나이가 52세 되었을 무렵이다. 이 책의 편찬 과정과 관련해서는 吳肅公의 『明語林』에 다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매정조는 편찬에 온 마음을 쏟았는데, 일찍이 첩 추씨를 맞이하고서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추씨에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여 물은 즉, 이미 『청니연화기』 13권을 편찬했음이다. (梅禹金篤志纂輯, 嘗納妾鄒氏, 一月不出, 人怪其昵, 問之, 則已輯靑泥蓮花記十三卷.)⁴⁾

이 일화는 매정조가 늦은 나이에 첩 추씨를 얻고서 한 달간이나 두문불출하지 않은 이유가 그 동안 추씨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니연화기』를 편찬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잠시 매정조의 처첩에 대해 살펴보면,⁵⁾ 그는 평생 1처 3첩을 두었다. 아내 唐氏는 부친과 친분이 있는 唐汝迪의 장녀였다. 『매정조년보』에 따르면 용경 2년(1568)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으며, 3명의 첩에 비해 애정을 보인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틀리지 않은 듯하다. 이에 매정조는 만력 원년(1573)에 남경의 기녀 潘氏를 첫 번째 첩으로 맞이하여 만력 3년에 아들 梅士都를 낳았다. 반씨는 춤을 잘 추었다고 하며 그 사이에서 난 딸이 요절하여 죽은 뒤로 만력 10년 반씨가 비통함에 못이겨 죽게 되자 매정조는 오랫동안 상심하며 여러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전기 「옥합기」는 바로 반씨를 기념하여 창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 뒤 매정조는 만력 13년 무렵 吳中에서 두 번째 첩인 王氏를 맞이하여 또 아들 梅士好를 낳았다. 왕씨 역시 그 재능을 아껴서 첩으로 받아들였으며, 왕씨와 관련된 몇 편의 시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첩이 바로 추씨인데, 반씨와 왕씨에 비해 추씨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지만 추씨

4) 梅鼎祚, 『靑泥蓮花記, 附錄』, 安徽: 黃山書社, 1998, 321쪽.

5) 侯榮川, 「梅鼎祚戲曲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9-12쪽.

역시 어떠한 재능이 있어 첩으로 맞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정조가 기녀의 뛰어난 문사재능을 아껴 좋은 친구로 대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바,⁶⁾ 추씨도 『청니연화기』 편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큼 문사 재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그래야 위의 일화가 기록된 의미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정조가 『청니연화기』를 편찬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기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오락적 목적에서 책을 출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명대의 출판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상업도서가 많이 유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녀를 소재로 한 『청니연화기』도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간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그러나 매정조가 직접 쓴 다음의 「서문」을 통해 보면, 그 편찬 목적은 단순한 오락적 흥미 유발이나 상업적 이익 증대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음악이 음탕하다고 한 것은 하나라 말부터 처음 시작되었고, 광대를 황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라 관청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기풍이 한 번 불더니 女伎가 연이어 흥성하고 당나라를 거쳐서 나라가 멸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로는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며 근엄한 모습이지만 때때로 허리띠를 벗고 갓끈을 푼다. 아래로는 서로 미혹시켜 빠져들어 항상 말을 더럽히고 정신이 혼미하다. 윗사람들은 근엄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때때로 허리띠를 벗고 갓끈을 푼다. 아랫사람들은 서로 미혹되어 폭 빠져 발을 담그고 머리를 쳐박고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사실 많이 무리지어 있다. 예로부터 그러하더니 지금에 이르러 더 심해졌다. 명나라는 바른 것을 숭상하고 사악한 것을 버렸기에, 서책에서는 기녀와 노는 것을 금함을 말하고 법률에서는 기녀를 사서 종양시키는 조항을 엄격하게 했다. 이런 까닭에 관청이 엄숙하고 연회의 자리가 고요하게 된지가 20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이 실제로 많이 무리지어 있다. 불그스레한 얼굴에 하얀 치아를 가진 3천 무리 중 반은 규방 출신으로, 담분경연 등의 14루가 다투어 즐지어 있다. 자수가 비록 정교하다고 하지만 저갓거리의 기녀만 못하고, 황금을 얻으려는 마음을 품고서 잠시 형벌에 처해질 것을 잊어버린다. 혹여 재인이 시를 지어 기생의 옥에 티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탕자의 허명이 치마 가장자리에다 가시를 수놓게 하고, 심지어는 무덤 위

6) 『鹿裘石室集』書牒卷6, 「與史司馬」: 二三女郎可稱校書, 復是良友. 昔人'寧從建業死', 眞名言也.

의 측백나무를 가리키며 동심결을 맺기도 하고 무덤의 가래나무를 빌어 서로 연리지가 될 것을 약속하니, 더욱 더 미혹된 이를 미혹되게 한다. 오호라, 이것이 내가 『청니연화기』를 지은 까닭이다. (樂曰爛熳，昉自夏季：倡曰黃門，署在漢官。此風一扇，女伎遞興，遙歷有唐，以逮勝國。上焉具瞻赫赫，時褱帶而絕纓；下焉胥溺滔滔，恒濡足而涵首：曠古皆然，於今爲烈爾。我朝崇正黜邪，竹書申挾倡之禁，金科嚴買良之條。以故官曹齷齪，樽俎燕閒，餘二百載矣。然而彼姝者子，實繁有徒。紅顏皓齒三千隊，半出清閨，淡粉輕煙十四樓，爭相列肆。刺繡雖巧，不如倚門，攫金是圖，頓忘入市。抑或才人偶賦，致白璧之微瑕，至或宕子虛名，俾綠衣之興刺，甚則指陵柏而結同心，托墓梓以成連理，又惑之惑者焉，嗟乎，此子靑泥蓮花之所爲記也。)

위의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음탕한 음악이 하나라 부터 있었고 궁정에서의 문란함이 하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명나라까지 왔는데, 명초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음탕한 기풍이 조정에서 다소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명나라 초기에는 관청에서 직접 기루를 관리하고 그 출입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기를 속량시켜줌으로써 기녀가 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었다.⁷⁾ 둘째는 기루 출입에 대한 명초의 강력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루의 발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어 기녀들의 미혹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이다. 명나라 중엽 이후로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 경제가 골목마다 기루가 생겨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고, 그 결과 조정의 규제로 인해 속량된 관기들이 민간의 기루로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기녀가 되려고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⁸⁾

명나라 초기부터 기루에 대해 강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문란했음을 의미한다. 송대부터 이미 민간의 기루가 발전하면서 매음이 늘어나 저급한 기루의 문화가 사회의 기풍을 어지럽혔다. 이에 朱元璋은 명나라를 세우자마자 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기루에 대한 엄한 조치를 취했지만, 기루 출입을 둘러싼 이중 잣대가 오히려 민간 골목에까지 매음이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기녀들은 표객을 피기 위한 계략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기루에 빠진 표객은 갈수록 미혹되어 패가망신하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었다. 따라서 매정조는 이러

7) 嚴明, 『中國名妓藝術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2, 93-94 참조.

8) 상동, 95-100 참조.

한 세대를 한탄하여 『청니연화기』를 편찬했다고 표방한바, 일차적인 『청니연화기』의 편찬 목적은 명대 사회의 어지러운 기루 문화에 대한 일종의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루의 음란한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 폐해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기풍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도가 아이러니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녀의 간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그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고, 또 기루의 일상을 꾸미지 않고 묘사하여 그 호기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녀 관련 서적을 순전히 오락적 독서물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선부른 판단이다. 이에 『청니연화기』를 비롯한 명대의 기녀 관련 전문서적은 대체로 흥미를 자각하는 가운데 반면교사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靑泥蓮花記跋語』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사마장경의 부가 요염하나 모두 풍간으로 귀결되고, 소자침의 우스갯소리나 욕설은 문장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거의 그것과 유사하다. (昔司馬長卿賦詞艷冶, 咸歸諷勸: 蘇子瞻嬉笑怒罵, 無非文章, 殆爲似之.)⁹⁾

이것은 문학작품이 역사기록과 다른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고 해서 그 현실의 상태를 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을 가져다줌으로써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의 독자적인 기능인 것이다. 즉 『청니연화기』가 기녀의 삶을 기록한 것은 마치 사마장경의 부나 사마침의 문장과 같이 풍간의 기능을 지니며, 그 내용을 통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을 지적한 대목으로, 이것은 곧 편찬자의 이면적인 편찬 목적이 된다.

『청니연화기』는 기녀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진흙탕과 같은 더러운 기루의 생활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답게 삶을 살아간 기녀, 이른바 '명기'를 통해 음란함에 빠져있는 기녀를 각성시킴으로써 기루 문화를

9) 『靑泥蓮花記, 附錄』, 安徽: 黃山書社, 1998, 323쪽.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다음의 말을 통해 기녀에 대한 그러한 매정조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대개 기녀는 애당초 반드시 음탕할 필요가 없었다.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에 몸을 의지하다가 저절로 습관이 되어 그곳에 머물게 되었거나, 이도 저도 아닌 곳에 발을 빠뜨려 갈수록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이다. 사람이 좋지 않은 곳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간혹 중간에까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곧 깨달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마디로 도를 따르는 것에는 진실로 하나같음이다. (凡倡, 其初不必淫佚焉. 或托根非所, 習慣自然; 或失足不倫, 淪胥及溺人之無良, 一至此耳. 間有臨中流而海岸遂登, 薄虞淵而日車始稅, 卽頓漸不同, 要其從道固一也.)

매정조는 우선 기녀가 본래 음탕하여 기루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기루에 막 발을 들여서도 처음부터 음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모두 기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길러진 습관으로 인해 기녀가 음탕하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기루가 얼마나 기녀를 음란에 빠지도록 유아매는지를 역설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매정조는 기녀의 전기를 통해 처음부터 기루에 발을 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이미 妓籍에 속해 있다면 그곳의 생활을 청산하여 삶의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 『청니연화기』에 수록된 기녀들은 모두 깨달음의 시기와 방법에는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각성하여 기루에서 빠져나오으로써 나름대로의 도를 이루었으므로, 기루의 음탕함에 묶여 있는 수많은 기녀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인 셈이다. 따라서 매정조는 당시 음란에 물든 기녀들이 역대의 명기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자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자 했다.

이와 아울러 매정조는 기루를 출입하는 문인들에게도 이 책이 그저 기녀와 얽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 편찬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책을 보는 이들은 그저 남쪽 창기들을 기록하고 북리에서 기생들과

놀아난 일을 기록해놓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지어다.(觀者毋以僅錄煙花於南部, 誌狎遊於北里而已)”

즉 편찬자는 이 책이 단순히 기녀에 대해 오락적 흥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기루를 드나드는 표객에게도 기녀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요컨대 『청니연화기』는 일차적으로 음탕으로 물든 사회를 성찰하고, 그 음탕의 극심한 정도를 드러냄으로써 세태의 악습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매정조는 사회 계도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음탕함에 빠져있는 일반 기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기녀의 삶을 통해 기루를 출입하는 표객을 훈계하고 명기가 감당한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그 당시 무능한 지식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했다. 결국 이것이 『청니연화기』의 궁극적인 편찬 목적이며, 명말 사회에 던진 편찬자의 화두라고 할 것이다.

3. 『靑泥蓮花記』의 체제 및 특징

『청니연화기』는 모두 13권으로 내외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편은 제1권-제8권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記禪」, 「記玄」, 「記忠」, 「記義」, 「記孝」, 「記節」, 「記從」의 7부분으로 세분된다. 외편은 제9권-제13권으로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記藻」, 「記用」, 「記豪」, 「記遇」, 「記戒」의 5부분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분류 안에서 『청니연화기』에는 한대부터 명대까지의 기녀 중 ‘취할 말한 기녀’ 216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기녀를 진흙에서 나왔으나 오염되지 않은 연꽃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는 혼탁한 기루에서 살고 있는 기녀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나쁜 습관에 물들지 않고 참된 도를 깨달아 일반 기녀와는 구별되는 삶의 종착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정절과 순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참된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바꾸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나라에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기녀가 있음을 높이 평가한

데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민간의 저급한 일반 기녀와 다른 이른바 '명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청녀연화기』에도 바로 명기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이 책의 체제를 통해 그 인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다. 매정조는 이 책의 편찬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개 약간의 권으로 나누어 기록했는데, 「선」과 「현」을 앞에다 두고, 「절」과 「의」로써 날실로 삼아 엮었는데, 핵심은 종양으로 귀결된다. 「충」과 「효」의 경우는 군신과 부자의 도리에서 상세히 말하는 것이다. 외편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성에 관련된 서목을 넣고 여성의 글을 모아두었는데, 중요하지는 않다. (記凡若幹卷, 首以禪·玄, 經以節·義, 要以版從: 若忠若孝, 則君臣父子之道備矣. 外編非是記本指, 卽參女士之目, 撫彤管之遺, 弗貴也.)

먼저 「기선」과 「기현」을 가장 앞에다 배치한 것에서 편찬자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절, 의, 충, 효로 대변되는 유가보다 선으로 대표되는 불가, 그리고 현으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학에 심취한 매정조 개인의 사상적 취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유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대 말엽에는 왕실의 무능과 조정의 부패 등으로 인해 정치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유가적 이념이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강남을 중심으로 유학자들이 기존 유학의 가치를 비판하며 불도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상인 '心學'이 유행했으며, 후대로 갈수록 불가의 이론이 우세를 차지했다. 매정조 역시 그 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유가의 덕목을 배열하는 기준에 있어서 '충'과 '의'를 '효'나 '절'보다 앞세운 점도 생각해 볼만하다. 충과 의는 유가의 핵심 덕목임에는 틀림없다. 나라를 위해

10) 명기에 대한 인식은 명대 여성의 정절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명대에 급격히 증가한 정절의 관념이 기녀에게도 적용되어 명기는 기본적으로 정절을 중시했다. 또 정절을 지켜야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이 『청녀연화기』의 「기중」의 기저에 깔려 있다.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명대에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음탕하여 여성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충성하고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사대부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기녀에게 이러한 덕목을 '절'과 '중'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 「기충」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적군의 강박함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버린 기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때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적장의 칼날 앞에서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기녀를 가장 으뜸으로 손꼽은 것이다. 또한 「기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맺은 약속을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의리로 명성이 난 기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의리는 대부분 자신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에 국한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결탁하거나 불의한 것에 굴복하지 않은 기녀의 삶을 높이 산 것이다.

한편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군신간의 의리 등은 집밖에서 강조되는 유가적 가치라면, 효는 집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가적 가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녀에게 효를 강조하는 것 역시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기녀는 집안이 몰락하여 기루에 들어갔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기루에 팔렸거나, 또는 애초부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로 살다가 기루에서 길러졌으므로, 대부분의 기녀에게 부모의 존재가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효심을 보인 기녀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 비록 한 명의 예를 들었지만 보기 드문 기녀의 일화를 통해 기녀도 효를 실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의 덕목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절과 중은 기녀에게 요구되는 가장 일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절」은 자신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절개로 명성이 난 기녀에 관한 내용이고, 「기중」은 기녀가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시집을 가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기녀에게 한 사람을 위해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나 시집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녀라고 해서 眞情이 없을 수는 없으니, 자신의 순정을 지킬 수 있을 때 명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보았다. 이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루의 영리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명기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집

가기는 『청니연화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만큼 전체 내용 중에서 '중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데, 그것은 기녀가 기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빠른 방법이기에 때문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기루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기녀의 가장 큰 소망이 시집가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녀는 자신의 처지가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중」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집가기는 대체로 절개와 의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명기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개와 의리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청니연화기』의 「내편」의 차례를 통해 편찬자가 지닌 유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 및 기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유가적 수행보다 불가, 도가적 성찰을 중시하고 있으며, 유가적 덕목 중에서도 충과 의를 절과 종보다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편찬자는 명기일수록 선을 깨닫고 도가에 귀의하며, 또 개인적인 절개와 시집가기보다는 기녀에게도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면모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다만 「외편」은 편찬자 스스로가 특별한 의도가 없고, 역대 기녀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서 누락된 것을 모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¹¹⁾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청니연화기』의 체제에 따라 각 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기녀들을 정리해 보았다.

		내용
내 편	記 禪	上: 摩登伽女 下: 鎖骨菩薩, 馬郎婦, 觀音化倡 (宋)任杜娘, 王朝雲, 琴操, 秦少游伎, 柳翠, (元)汪憐憐, 汪佛奴 (明)王寶奴
	記 玄	(漢)女几 (唐)方響女妓 (宋)曹文姬, 曹三香, 倡仙, 劉妍, 侯行首, 黃鶯妓, 楊柳金, 張珍奴, 陳懿, 里娘, 吳女盈盈 (元)李真童, 李當當 (明)楊氏
	記 忠	(송)韓斬王梁夫人, 毛惜惜 (金)張鳳奴 (元)忠徐倡

11) 참고로 덧붙이면, 「기조」는 용모가 아름답고 재예가 뛰어난 기녀의 일화를 소개했고, 「기용」은 기녀의 재주가 쓸모 있게 사용되어 모종의 도움이 되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기호」는 호방한 성격을 소유한 기녀에 관한 내용이고, 「기우」는 우연한 기회에 인생의 좋은 결말을 얻게 되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계」는 기녀를 둘러싸고 일어난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 경계를 삼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記義	(당)嬌陳, 場紅紅(南唐)宋齊丘妻魏氏(楚)瑞卿(宋)杭妓薛希濤, 台妓嚴蕊(원)樊事眞(명)馮喋聚, 王翹兒
	記孝	(명)新王二
	記節	(송)姚玉京(당)李娃傳, 霍小玉傳, 太原妓, 張建封妾盼盼, 崔徽, 楊倡傳, 段東美, (송)郝節娥, 劉蘇哥, 謝桂英, 義倡傳, 楊愛愛, 王幼玉, 陶師兒, 林小姐, 長安李姝, 韓香, 譚意歌, 劉玉川姐, 湯秀奴, 梁楚楚 (원)蔡州妓, 王巧兒, 翠荷秀, 李哥, 愛卿傳(명)鐵氏二女, 劉吟春, 高三, 白女, 王烈女, 楊悶兒, 王蘭卿, 齊錦雲, 薛鐵兒
	記從	(한)孝武李夫人(당)舞娥異, 武昌妓, 張住住, 行雲, 藥珠, 常州樂伎, 茂英, 轉轉, (石晉)侯小師, (송)山南樂妓, 胡文媛, 鄱陽小鬟, 江淮官妓, 周韶(胡楚, 龍靚), 陳直方妾嵇, 鄭容高瑩, 九尾野狐, 張英英, 楊玉, 岳楚雲, 蘇小卿, 謝天香, 西閣寄梅記(馬瓊瓊), 蘇小姐, 蘇小小, 薛倩, 京娘, 江柳, 聶勝瓊, 楚娘, 閩府妓, 獄官妻(원)眞氏, 喜春景, 王金帶, 連枝秀, 劉婆惜, 趙倡(명)林奴兒, 張二
	외편	記藻 (남제)蘇小小(당)劉國容, 吳二娘, 華州王氏, 薛濤, 薛濤鬼詩, 田洙遇薛濤聯句記, 薛濤牋, 牋紙譜, 楚兒, 顏令賓, 王團兒, 王蘇蘇, 襄陽妓, 常浩, 徐月英, 蓮花, 楊苧羅, 故臺城妓, 成都妓(송)溫琬, 周月仙, 胡楚, 龍靚, 青幕子婦, 尹溫儀, 陳鳳儀, 周氏, 合生詩詞(散樂妓 洪惠英), 吳淑姬, 蜀妓, 樂琬(揚府倡蘇翠, 妓對), 朱雲楚, 某邑妓, 平江伎, 都下妓, 僧兒, 趙才卿, 翁客伎, 蜀妓, 李秀蘭, 京師妓(원)梁園秀, 張怡雲, 珠簾秀, 劉燕歌, 張玉蓮, 一分兒, 大都行院王氏, 阮碧雲, 芙蓉(명)淮安妓, 琵琶伎, 詠骨子妓, 徐氏, 張九, 劉季招, 記用 (남당)秦弱蘭, (송)楊臺柳, 保安娼姥, 楚楚, 楊皎, 王鈇妾 記豪 (당)鄭舉舉(원)順時秀 記遇 (축)李豔娘(초)徐降眞, 小東(송)李師師, 唐安安, 眇倡傳(원)玉蓮兒, 啞娼志(명)老娼晚福 記戒 (당)李林甫爲娼(송)婺州富家犬, 宣城葛女, 表娼馮妍, 邵武倡, 李雲娘, 崔蘭英, 念二娘(원)湖邊曲, 張氏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찬자는 각 항목마다 조대순으로 기녀를 배열했다. 송 이전의 기녀가 대부분이고 명대의 기녀는 그다지 많지 않는데, 시대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대별로 기녀의 수를 정리해보면 한위 2명, 남제 1명, 당 38명, 오대십국 5명, 송 101명, 금 1명, 원 30명, 명대 31명이다.

각 시대별 기녀에 관한 기록은 모두 기존의 서적에서 모은 것으로, 각기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자료의 출처는 불경에서부터 정사, 별집, 필기, 전기,

시화 등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는 현존하지 않은 서적도 있어서 『청니연화기』의 역사 문헌적 가치를 높여준다.¹²⁾ 또한 매권의 끝에는 “女史氏曰”이라는 평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도 주목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 편찬자의 편찬 의도가 ‘警戒’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4. 『靑泥蓮花記』의 편찬 배경

앞서 『청니연화기』는 역대 기녀의 전기집이지만 그 편찬 목적이 단순히 기녀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청니연화기』가 사회의 음란을 조장한다고 보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청니연화기』의 편찬 배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편찬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바, 아래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1) 명대의 기루 발전에 따른 기녀 품조 현상

기녀는 처음 樂妓로서 존재했지만,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점차 매음의 대상이 되면서 특히 송대 이후로 그 음탕함이 심해졌다. 명대에 이르러서는 골목마다 기루가 생겨나고 기녀의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¹⁴⁾ 명초부터 기루에 대해서도 제도

12) 『청니연화기』 각 편의 자료 출처에 관해서는 劉小玉의 『靑泥蓮花記考論』(上海師範大學碩士論文, 2005) 제1장 ‘靑泥蓮花記編目考察’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13) 『四庫全書總目』: 兩淮鹽政彩進本: 是編記倡女之可取者, 分七門——然狹斜之遊, 人情易溺, 懲戒尚不可挽回, 鼎祚乃摭瑣瑣聞, 謂冶蕩之中亦有節行, 使倚門者得以藉口, 狎邪者彌為傾心. 雖意主善善從長, 實則勸百而諷一矣. (清) 周中孚, 『鄭堂讀書記』: 而惜其用心于無益之地, 徒為導情增欲之具, 所謂“作法于涼, 弊將若何”! 禹金尚未之知乎! 前有萬曆更子自序及采書目, 目錄後又有識語.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魯迅도 『中國小說史略』에서 『청니연화기』를 ‘狹邪小說’에 넣어 그 가치를 평가했다. (唐人登科之後, 多作冶游, 習俗相沿, 以為佳話, 故伎家故事, 文人間亦著之篇章, 今尚存者有崔令欽教坊記及孫棨北里志. 自明及清, 作者尤夥, 明梅鼎祚之靑泥蓮花記, 清余懷之板橋雜記尤有名.)

14) 謝肇淛, 『五雜俎』, 瀋陽: 遼寧出版社, 2001, 163쪽: 今時娼妓布滿天下, 其大都會之地動以千百計, 其他窮州僻邑, 在在有之, 終日倚門獻笑, 賣淫為活, 生計至此, 亦可憐矣.

를 마련하면서 기루 출입을 엄금하고 관기를 관리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기루가 발전하고 기녀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범죄자의 처자뿐 아니라 정치에서 실각한 조정대신의 처자까지도 기녀로 전락했으며, 또 몽고가 멸망하면서 중원에 유랑하던 여성도 기적으로 유입되었다. 게다가 명대 중엽 이후로 강남 일대의 상업적 기루가 흥성하면서 관에서 쫓겨난 기녀는 다시 시기가 되었고, 일반 여성조차도 기녀가 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¹⁵⁾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 간단하게 기녀에 대한 등급 구분이 있었음이 그것을 반증한다.¹⁶⁾ 이러한 기녀의 등급 구분은 저갓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다소 저급한 기녀와 다른 특출난 재능과 뛰어난 문사지식을 지닌 기녀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청대 章學誠이 말한 바와 같이 “명대의 가혹한 정치로 인해 縉紳의 신분이 몰락하면 처자에게까지 파급되어 詩禮의 대가가 대부분 복리에 빠지게 되었는데,¹⁷⁾ 다시 말해 기녀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기녀의 문예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녀의 등급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존재했지만,¹⁸⁾ 상업의 발전에 따라 흥행한 기루에서 기녀에 대한 등급은 관기의 구분과는 또 다른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고급 기녀가 되면 기생어미의 간섭에서 벗어나 궁핍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접객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누구와 교류할 지 뜻대로 정할 수 있는 등의 일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여러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문을 뽑내며 명성을 얻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기녀들은 문사지식을 습득하고

15) 嚴明, 위의 책, 93-96쪽 참조.

16) 嚴明, 위의 책, 5쪽: 最上等的是鴉母, 也稱假母, 她們是妓院的主人; 中間等級的是能夠接客的妓女, 她們當中還有各種區別; 低級者只有肉體的吸引力, 很難走紅, 也喊不起高價, 高級者則往往精通音樂·歌舞·文學等技藝, 能夠吸引審美要求較高的文人·官員和商人, 她們在一定程度上也可以選擇或拒絕上門的客人, 因此喊得起高價, 也容易走紅, 往往成爲鴉母的搖錢樹而受到一些優待; 最次等的便是妓院內不能接客的粗使丫鬢, 她們因不能爲鴉母直接掙錢而受到種種卑視虐待, 平時幹活最苦, 又沒有任何權利, 她們沉淪在妓院的最下層.

17) 章學誠, 『文史通義』, 上海書店, 1988, 70쪽: 前朝虐政, 凡縉紳籍沒, 波及妻孥, 以致詩禮大家, 多淪北里. 其有妙兼色藝, 慧擅聲詩, 都士大夫, 從而酬唱.

18) 嚴明, 위의 책, 56쪽.

예술재능을 연마하면서 고급 기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¹⁹⁾

한편 명대 중엽 이후로 정계를 떠나 갈 곳을 잃은 관료를 비롯하여 아예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뜻을 버린 문인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結社를 형성하면서 기루는 문인들의 결집 장소가 되었다. 입사가 아니라 세속에서 또 다른 출로를 찾은 문인들이 삼삼오오 결집하면서 기녀는 단순히 유흥을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예를 교류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²⁰⁾ 수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경험한 문인들에게 기루는 오랫동안 축하와 위로의 장소였지만, 세속에 은거하며 새롭게 현실에 적응해 가는 문인들에게 기루, 특히 명기가 머무르는 곳은 도처에 흩어진 문인들이 결집하여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²¹⁾

이렇게 기루를 빈번하게 출입하다보니 문인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누가 가장 뛰어난 기녀인지를 가려뽑아 그 재능을 품평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대체로 과거의 등급을 빗대어 기녀를 품평했으므로 '花榜'이라고 했다.²²⁾ 명말에 성행한 이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명말에 출간된 기녀 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조대장은 『진회사녀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이 금릉의 명기들은 화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왕보노 이하는 평범하다. 또 각 기녀마다 사 한 수씩 지었는데, 절절하나 우아하지는 않다. 『십이녀교서록』은 그런대로 괜찮으나 완전히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미진한데, 나머지는 볼품없이 쓸데없는 문장일 뿐으로 전혀 비교가 되지 않으며 졸렬한 것으로 뛰어난 것을 비웃는 것이니 유독 안타깝다. (曾見金陵名姬分花譜, 自王寶奴以下凡若, 而人各綴一詞, 切而不雅. 『十二女校書錄』差

19) 章學誠, 위의 책: 夫傾城名妓, 屢接名流, 酬答詩章, 其命意也, 兼具夫妻朋友, 可謂善藉辭矣.

20) 錢謙益, 吳偉業 등과 같은 문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기녀의 문예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문인들 역시 기녀와의 교류를 통해 기녀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학 창작을 펼쳐나갔다. 만명의 문인들이 특별히 기녀의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기녀가 표출하는 문학적 감정이 '眞情'을 중시하고자 하는 만명사조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1) 『板橋雜記』, 『列朝詩集小傳』 등에서 진회의 명기를 집은 문인들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명말의 명기 '李大娘'의 집에 대해 『판교잡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所居臺榭庭室, 極其華麗, 侍兒曳羅者十餘人, 置酒高會."

22) 劉坡, 「皇帝·文士與下層的互動: 明代秦淮風月嬾變考」, 『船山學刊』, 2011年第1期, 153쪽: "花榜"之稱來源於科舉, 大致興起於宋時, 而盛於明中晚期.

強人意, 未盡當家, 餘子紛紛蛙鳴蟬噪, 刻畫無鹽, 唐突西子, 殊爲可恨.)²³⁾

왕보노는 정덕 황제가 총애한 기녀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덕 연간에 이미 화방이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십이녀교서록』이 명대 금릉의 기녀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화방을 기록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진대장은 『십이녀교서록』을 읽은 뒤, 『진회사녀표』를 완성했다. 명기의 탁월함을 흠모하고 세속 사람들의 품평에 분개하여 이 책을 지었다고 밝혔는바, 당시 문인들이 기녀에 대해 제각기 다들 정도로 평가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후일 潘之恒은 『진회사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용경 경오년에 진회에서 문인들이 모였는데, 연대회가 있었다. 함께 노닌 사람으로는 곤릉의 오백고, 옥봉의 백룡 양진어 무리인데, 모두 재능을 뽐내며 여러 기녀들의 아름다움을 품평했다. 일시에 성행하였고, 그 뒤에는 그런 전통이 끊어졌다. (隆慶庚午結客秦淮, 有蓮臺之會, 同游者昆陵吳伯高·玉峰梁伯龍辰魚輩, 俱擅才調, 品藻諸姬, 一時之盛, 嗣後絕響.)²⁴⁾

여기서 '품조'는 명말에 유행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반지항은 『金陵妓品』을 통해 기녀를 품, 운, 재, 색으로 나누어 32인을 분류했다. 그 뿐 아니라 『巨史鈔』에서 金陵梨園의 일부인 화림의 뛰어난 기녀 7명을 '華林七桂'라고 분류하여 그들을 품평했다. 이후 청초에 편찬된 『板橋雜記』도 당시 금릉의 명기를 가려뽑아 품평한 것이다. 또 금릉에는 '金陵十二釵'가 있고 '秦淮八艷' 등의 뛰어난 기녀를 칭송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강남의 명기 품조 현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녀들은 더욱 명기가 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물론 품조는 기녀의 아름다움을 품평한 것이지만, 그것은 외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녀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을 비롯하여 성격, 말솜씨 등 다양한 방면의 재능을 두루 포함한다. 이것은 나아가 기녀에 대한 명대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기녀를 술자리에서 흥을 돋우거나 매음의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23) 『說郛續』 46권, 참조.

24) 『巨史鈔』, 四庫全書總目.

점차 독자적 인격체로 인식했음을 말한다. 이에 기루가 점점 찾집 등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²⁵⁾ 이러한 변화는 기루가 골목마다 어지럽게 번창하던 가운데 기녀, 표객, 문인 등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한 각성과 계도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며, 『청니연화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심학의 발전으로 형성된 만명사조의 영향

명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여러 가지 법제 제정을 통해 왕권 중심의 정치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명태조때부터 이미 제도와 실제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한 모순은 황제나 조정의 대신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조차도 경직되게 만들었다. 일례로 명태조는 감찰제도를 설립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의 충절을 중시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간언을 하는 신하들을 치하했으나 이면적으로는 그 직언한 신하를 처형하는 사례가 빈번했다.²⁶⁾ 또 팔고문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고 程朱學을 관학으로 세워 장려하였으므로 사상적으로도 통제되어 있었다. 이에 많은 문인들이 황제를 칭송하거나 태평한 치세를 찬양한 이른바 臺閣體의 문장을 지으며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²⁷⁾

명초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는 명나라 중엽에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홍치, 정덕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상업이 번영하면서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흥 시진이 출현하게 되었고 경제가 번창하면서 사회는 갈수록 사치스러워졌다. 게다가 정덕 연간 이후로 조정이 부패하면서 사풍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권모술수가 난무한 정계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부패한 과거제도로 인해 신진세력이 나아갈 기회조차 봉쇄당했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25) 張曉虎, 『清初四大名妓』,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7쪽: 許多著名的妓館往往集戲院, 餐館, 茶樓, 書院等項目爲一體.

26) 일례로 『明史』 권139 「王朴傳」에서 간언한 왕박을 명태조가 무참히 살해한 기록을 볼 수 있다.

27) 王運熙, 顧易生 主編, 『中國文學批評史新編』,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3쪽 참조.

설 자리를 잃게 된 명말의 지식인들은 왕양명의 심학을 구심점으로 결집하면서 새로운 사상 기풍을 발전시켰다.²⁸⁾

심학은 송대 유학이 지닌 이론적 모순과 형식화 등을 극복하고 불가와 도가의 사상을 끌어와 도덕을 수련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왕양명은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불도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상 체계를 이루는 것이었다. 물론 양명학은 유학 내부에서 불교를 융합하여 발전한 것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불교의 색채가 짙어졌다. 유불도는 서로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고 보고 상호 합일을 주장하면서도 성인의 정신 세계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불교의 심성론과 禪의 수련을 가장 으뜸으로 삼았으며, 도교는 하나의 보완적 수단으로 삼았다. 만명의 불교계의 승려들은 대부분 유학에서 출가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당시 문인들은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²⁹⁾ 이러한 사상적 특성이 새로운 사조를 이루어 만명 시기에 유행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다른 사회의 기풍이 형성된 것이다.

잠시 심학의 계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王陽明→王畿·王良→徐樾·王鑾·王棟·顏鈞·趙貞吉→羅汝芳·耿定向·何心隱→楊起元·周汝登·李贄·焦竑·管志道 등으로 이어진다.³⁰⁾ 여기서 제4대에 나여방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매정조의 부친과 함께 선성학을 발전시킨 인물이며, 매정조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나여방은 왕기와 교유했으며, 당시의 유명 승려 蘊空常忠 등과性命學에 대해 논쟁하기도 했다.³¹⁾ 또 나여방은 매정조의 재능을 알아보고서는 그의 문하로 불러 공부하게 했는데, 이때가 매정조가 14세일 무렵이다.³²⁾ 매정조는 그의 문하에서 湯顯祖·龍宗武·蹇達 등과 교류했는데,³³⁾ 그들 모두 심학에 심취한 문인들이다.

물론 매정조의 심학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 그렇지만

28) 羅宗強, 『明代後期士人心態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6, 52쪽 참조.

29) 黃卓越, 『佛教與晚明文學思潮』, 北京: 東方出版社, 1997, 3-24쪽 참조.

30) 黃卓越, 위의 책, 7쪽.

31) 黃卓越, 위의 책, 8쪽.

32) 『清康熙寧國府志』, 『青泥蓮花記, 附錄』, 322쪽.

33) 侯榮川, 위의 논문, I: 萬曆四年(1576), 湯顯祖·龍宗武·蹇達等來宣城, 與鼎祚成爲知交.

우선 그가 스스로 '거사'라고 칭한 것에서부터 만명사조의 영향 속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위, 도룡, 당현조, 원종도 등 심학을 바탕으로 불학에 심취한 문인들은 모두 居士라고 자칭하며 불도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또 그가 낙도인, 매진자, 태일생 등을 호로 삼은 것에서도 그의 사상적 경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매정조는 어릴때부터 부친의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자신이 직접 현실 사회의 모순을 경험함으로써 출사를 포기하고 참선의 수련을 통해 마음 공부에 매진했는바, 그의 사상적 경향은 명말의 심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청니연화기』의 편찬 체례에서 그의 사상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불과 도를 유보다 먼저 내세운 것은 바로 유가 사상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심학은 기존 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불가의 사상을 질게 수용했다. 이에 명말의 문인들은 유학의 이론이 지닌 한계를 깨닫고 불가에 심취하게 되었는데, 매정조가 여기서 불을 먼저 내세운 것도 불교에 심취한 매정조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명말사조의 배경 속에서 출발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고자 「기선」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마등가녀 이야기, ② 본래의 불가 선사가 교화의 목적으로 기녀가 된 경우, ③ 일반 기녀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경우가 그것이다. 모두 12명의 기녀에 관해 기록했는데, 상편에서는 마등가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헌 기록을 발췌함으로써 하편에 수록된 11명의 기녀와 차별화시켰다. ①의 마등가녀는 첫눈에 반한 阿難尊者와의 사랑을 구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지만, 최후 세존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나한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다. 마등가녀를 기녀의 범주에 넣은 것은 아마 불가의 최고 경지에 이른 여성이 본래는 음란에 몰든 세속의 기녀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또 비록 풍진에 떠도는 기녀라 할지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든지 마등가녀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③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 기녀가 불가의 깨달음을 얻어서 기적에서 벗어나 스스로 승려가 된 경우를 통해 기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해 ②의 경우는 조금 아이러니

하게 생각되지만, 한마디로 선사가 음탕함을 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녀로 변했다고 본 것이다. 「마랑부」를 예로 들면, 마랑부가 온갖 음란을 저지르고 있지만 한번 그녀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뒤로 영원히 음란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마랑부의 말은 역할을 말하고 있다.³⁴⁾ 요컨대, 「기선」은 모두 불가의 가르침으로 기녀가 본질적으로 음탕함에서 벗어나게 된 모범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음란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매정조는 「기선」에 대한 총평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늘과 진흙의 땅에도 아름다운 생명이 있고, 화염과 번뇌의 장소에 어찌 시원한 경계가 없으리오? 그러므로 저주를 보호하며 꽃을 부처에 올리는 무리이나 간혹 추파를 던지는 사람을 본받고,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쇄골의 영혼이나 신발을 신고 갓을 쓴 흔적을 입시로 드러낸다. 대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다방이나 술집이라도 곧 도림이 된다. 마음을 바꾸어 그저 형틀을 벗고 칼을 놓으면 정과를 이룰 수 있다. 작은 지렁이 따위도 딱딱하게 변신할 수 있음은 참된 깨달음에 명합하는 것이고, 막돌이 고개를 끄덕임을 아는 듯함은 본디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하물며 인간은 어떨겠는가? 내가 이것을 편찬하여 기록하면서 선과 현을 먼저 배열한 것도 또한 지름길의 문을 열고서 귀의의 길에 따르기 위함인 것이다. (沮澤淤泥之地, 亦有嘉生; 火焰煩惱之場, 豈無涼界? 故護咒散花之衆, 或本日挑心招之人; 抑翅蜚骨鎖之靈, 權示跣履掛纓之跡. 蓋一淨念, 則茶坊酒肆, 卽是道林; 一回頭, 但脫械放刀, 立成正果. 彼微多且能化穀, 冥合眞詮; 頑石猶知點頭, 本含佛性, 而況若而人者乎? 余撰是記, 首列禪玄, 夫亦開方便之門, 遵歸受之路者也.)

즉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할지라도 마음의 수련을 통해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지다. 그 마음의 수련은 불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기녀 역시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 음란한 기루의 속박에서 벗어나 불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녀가 음탕한 것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해 길러진 것일 뿐이라 하겠으므로, 결국 기녀가 기루에서 벗어나

34) 『青泥蓮花記』, 39쪽: 昔有賢女馬郎婦, 于金沙灘上施一切人淫. 凡與交者, 永絕其淫. 死葬后, 一梵僧來, 云: '求我侶.' 掘開, 乃鎖子骨. 梵僧以杖挑起, 升空而去.

지 못하는 것은 기루의 잔혹한 억압 때문이 아니라 기녀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지 못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3) 명기의 삶에 빚댄 사대부에 대한 풍자

위의 절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초 주원장이 정비한 정치적 질서가 宣德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正統 이후로 외척과 환관, 그리고 간신 등에 의해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정 이후로는 황제의 태만과 무능이 그치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오랫동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거상이 출현하면서 정계와 결탁하여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를 초래했는데, 특히 매관매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사대부들은 대부분 입사와 세속 사이에서 배회했다.³⁵⁾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의 기풍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 중 강남을 중심으로 한 사치스러운 생활이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기루가 발전했고, 가마꾼이나 뱃사공, 가동, 무기 등이 많아졌다. 시문서화, 골동품, 공예품 등이 고가로 매매되고 또 소장가들이 늘어났다. 이에 갈 곳을 잃은 문사들이 새로운 출로를 찾을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수 있었다.³⁶⁾ 많은 문인들은 강남으로 결집하여 다양한 문집을 출간했을 뿐 아니라 상인, 여성 및 여항의 새로운 독자층을 겨냥한 작품을 창작했다. 또 경제가 민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사치품들이 즐비하게 되자 일각에서는 고가의 회귀품이나 뛰어난 예술품을 찾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역시 재능 있는 문사들의 출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인들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출사와 세속 사이에서 방황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응시했다가 실패하는 일을 몇 차례씩이나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고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

35) 羅宗強, 위의 책, 3쪽 참조.

36) 羅宗強, 위의 책, 153쪽 참조.

했다.³⁷⁾ 그중 기녀 관련 전문서적도 이와 같이 출사와 세속에서 배회한 문인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세속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업적 이익을 겨냥한 듯하나, 그 이면에는 사회를 향한 편찬자의 비판적 안목이 함축되어 있다.

매정조의 『청니연화기』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가 사상과 관련된 「기충」, 「기의」, 「기효」, 「기절」, 「기중」 등을 통해 그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³⁸⁾ 다만 「기절」과 「기중」은 일반적으로 기녀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기효」에서는 단 1명의 기녀를 예로 들어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하겠으므로, 잠시 「기충」, 「기의」를 중심으로 그 비판적 의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매정조가 기녀를 분류하면서 절과 중보다 충, 의의 덕목을 먼저 앞세운 것은 기녀조차도 충, 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녀는 목숨까지 버림을 말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 충, 의의 덕목을 지키고자 기녀조차 목숨까지 버리는데, 당시 그 덕목을 가장 잘 완수해야 하는 정계의 군신들에게는 불충과 배신이 난무하고 있음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만력 연간의 부정부패한 조정과 나약한 권신들의 모습은 강남 문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³⁹⁾ 따라서 매정조는 「기충」에 대한 다음의 평어를 통해 그 비평 의식을 드러내었다.

양부인이 어렵지 않게 기왕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이 좋게 복채와 복을 잡고 송나라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나 둘의 사이는 멀어졌다. 무릇 기회를 잃고 『군지』를 쓴 이른바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두 마음을 먹지 않는 신하가 설마하니 또 머리쓰개를 쓴 여인에게 모욕당하겠는가. 그런

37) 羅宗強, 위의 책, 163쪽 참조.

38) 『청니연화기』에 수록된 「劉玉川娼」에서 그 일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옥천은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자신의 기녀에게 혼자 죽을 수 없으니 같이 죽고자 한다고 하면서 독약을 주었는데 기녀가 기꺼이 먼저 마셨다. 매정조는 그 뒤에 유옥천 기녀의 절개를 빗대어 문천상이 일찍이 부하들을 비판한 일화도 기록했다. 즉 문천상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부하가 문천상이 죽으면 모두 함께 죽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문천상이 그 부하에게 지금 그대들은 유옥천을 흉내내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부하들이 크게 웃었다. 말하자면, 부하들의 의리가 유옥천의 기녀보다 못함을 풍자한 것이다.

39) 『明史』, 北京: 中華書局, 2002, 5540쪽: 自嵩用事, 風俗大變. 賄賂者荐及道跡, 疏拙者黜逮夷. 齊. 守法度者爲迂竦, 巧彌縫者爲才能. 勵節介者爲矯激, 善奔走者爲練事. 自古風俗跡坏, 未有甚于今日者. 蓋嵩好利, 天下皆尙貪. 嵩好, 天下皆尙諂. 源之弗洁, 流何以澄. 是弊天下之風俗. 大罪十也.

즉 창기는 또 논해 무엇 하는가! (梁夫人不難于識蕪王, 兩親執桴鼓以作士氣而踈, 夫失機, 以章軍志, 所謂勁烈不貳心之臣, 豈復得辱以巾幗哉, 則又何論于倡也.)

韓蕪王과 양부인의 이야기로서 『宋史, 韓世宗傳』에서도 볼 수 있다.⁴⁰⁾ 『청니연화기』에 수록된 「양부인」을 보면, 양부인은 京口의 창기다. 양부인은 어느 날 마을의 사묘에 쓰러진 기왕을 우연히 구해주었고, 그 뒤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다. 후일 기왕은 공을 세워 장군이 되어 양부인을 양국부인으로 봉했다. 그런데 황천탕의 전투에서 기왕이 적을 생포하고서 놓치는 실수를 범하자, 양부인은 기왕이 잘못하여 적을 놓쳤으므로 벌하라고 주소를 올렸다. 금나라 군대가 침입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순간, 양부인이 남편과의 사사로운 정보보다 나라에 충성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청니연화기』는 단순히 기녀의 삶을 소일거리 삼아 읽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기녀의 삶에 빚대어 당시 조정과 사대부 등을 풍자하고 훈도하기 위한 목적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의가 사라진 시대에 그 충의를 권고하기는 힘들다. 함부로 직언을 했다가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편찬자는 문란한 기녀에게 충의의 덕목을 강조하여 교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기녀의 삶에 빚대어 군신들에게 에둘러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개 창기에게 충이 미치니 그 세상 역시 정말 슬퍼할 만하다”⁴¹⁾고 한탄한 매정조의 마음에서 기녀의 애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통이 묻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4. 나오면서

매정조의 『청니연화기』는 중국의 역대 기녀에 관한 전기 자료를 모아 편찬한

40) 『宋史』, 卷364, 北京: 中華書局, 2002.

41) 女史氏曰, 嬪終于其所事而忠矣, 況倡乎, 彼徐倡之三人者, 卽終事, 且難于國, 又何以死焉, 夫忠及於倡, 其世亦良可悲矣.

책이다. 편찬자는 명대의 어지러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나타난 지식인의 몰락과 민간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한 기루의 문란함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했다. 이 책이 단순히 기녀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 편찬 체제나 수록한 명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니연화기』의 독특한 편찬 체제와 내용 분류를 통해 이 책의 편찬 목적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책의 편찬 배경을 통해 그 편찬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편찬자가 유가보다 불도를 앞세운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심학을 위주로 한 명말사조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그것은 유가적 정치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대부들의 무능과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특히 명기에게서 나타나는 충의와 의리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빗대어 당시 사대부들의 모습을 풍자하고자 한 이면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편찬자가 기녀의 전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명나라 중엽이후 강남을 위주로 성행한 기루의 음란한 문화에 대한 성찰과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편찬자는 역대 명기의 삶을 통해 아직도 음탕함의 속박에 빠져있는 일반 기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녀에 대한 명대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특히 그 당시 명기를 찾아 교류하는 기녀 품조 현상이 일반 기녀와 구분되는 명기에 대한 참선과 충의 등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參考文獻〉

- 過庭訓, 『本朝分省人物考』, 續修四庫全書 電子版.
 紀昀等,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7年.
 陶珽, 『說郛續』(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年.
 梅鼎祚, 『鹿裘石室集』, 續修四庫全書 電子版.
 梅鼎祚, 『青泥蓮花記』, 安徽: 黃山書社, 1998年.
 梅鼎祚, 『繪圖青泥蓮花記』(明清筆記史料), 2000年.
 潘之恒, 『巨史鈔』, 四庫全書存目叢書 電子版.

- 謝肇淛, 『五雜俎』, 瀋陽: 遼寧出版社, 2001年.
- 余懷, 『板橋雜記』, 南京: 南京出版社, 2006年.
- 張廷玉, 『明史』, 北京: 中華書局, 2002年.
- 章學誠, 『文史通義』, 上海: 上海書店, 1988年.
- 錢謙益, 『列朝詩集小傳』, 臺北: 世界書局, 1965年.
-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2002年.
-
- 葛欣榮, 『宋清之際宣城梅氏家族研究』,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年.
- 羅宗強, 『明代後期士人心態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6年.
- 魯迅, 『中國小說史略』, 山東: 齊魯書社, 1997年.
- 代智敏, 「梅鼎祚『青泥蓮花記』的編選思想」, 『湖南科技學院學報』第34卷第11期, 2013, 11.
- 劉小玉, 『青泥蓮花記考論』,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5年.
- 劉坡, 「皇帝·文士與下層的互動: 明代秦淮風月嬗變考」, 『船山學刊』, 2011年第1期.
- 馬珏, 「專以娼論腸內熱: 『青泥蓮花記』的青樓女性觀管窺」, 『明清小說研究』, 2004年第3期.
- 穆樹榮, 「從王翹兒看『青泥蓮花記』中“女義士”形象」, 『西安航空學院學報』第37卷第2期, 2019, 3.
- 徐朔方, 『梅鼎祚年譜』,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3年.
- 嚴明, 『中國名妓藝術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2年.
- 楊子蓮, 『『青泥蓮花記』的文化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年.
- 王運熙, 顧易生 主編, 『中國文學批評史新編』,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年.
- 陸林, 「梅鼎祚與青泥蓮花記」, 『中國典籍與文化』, 1999年 第1期, 1999年.
- 李慈瑤, 『梅鼎祚研究四題, 梅鼎祚年譜補正』, 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11年.
- 俞士玲, 「論『青泥蓮花記』的消除欲望和重塑激情」, 『池州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12, 8.
- 魏東朝, 「『青泥蓮花記』摭談」, 『殷都學刊』, 1990, 1.
- 張曉虎, 『清初四大名妓』,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 陳晨, 「論『青泥蓮花記』的倫理敘寫」, 『湖南人文科技學院學報』, 2011, 5.
- 侯榮川, 「梅鼎祚戲曲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年.
- 黃卓越, 『佛教與晚明文學思潮』, 北京: 東方出版社, 1997年.

〈Abstract〉

A Study on Meidingzuo's Qingnilianhuaaji

Park, Jeong-sook

This essay is the study of Qingnilianyuaji(青泥蓮花記) that Meidingzuo(梅鼎祚) had compiled during a Wanli(萬曆) year of the Ming(明) Dynasty. It contains the record for 216 'jinü(妓女)' from the Han Dynasty to the Ming Dynasty. There have been reported numerous studies on jinü till now.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y results. But, the in-depth study of literatures on jinü have never been many. Qingnilianyuaji contains biographies of jinü and will be widely used to study on jinü.

Qingnilianyuaji consisted of intrinsic side and extrinsic side. In the intrinsic side, Each jinü classified by illumination of jinü's life on the basis of virtue of Buddhism, Toism and Confucianism. In the extrinsic side, It illuminates jinü's literary talent and individual personality. The writer have classified like this because jinü's moral character has been highlighted first than looks and talents. Also it has been highlighted first virtue of Buddhism and Toism than Confucianism because of my compilation standard.

Meidingzuo was absorbed in Buddhism. But more important thing is because of an expression of discontent about reality of politics on Ming Dynasty. Consequently it has praised the jinü achieved enlightenment religiously of Buddhism and Toism and got away from jinü's immoral life themselves. The virtue of Confucianism are loyalty, fidelity, filial duty, integrity, chastity, marriage. It emphasizes loyalty and fidelity than chastity and so on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Chastity is the common virtue of jinü. By the way, it places emphasis on loyalty and fidelity of jinü. It is a criticism of the nobility loosed loyalty and fidelity compare unfavorably with jinü. Also, the compiler have fundamental solution to be completely out of jinü's promiscuous life. jinü's life written on this essay is a model of general jinü's life.

As we've seen,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wirter looked at 'jinü(妓女)' through the system of compilation and classification of Qingnilianhuaaji. And I could clearly

understand why Meidingzuo came to compile the book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its compilation. In particular, it pointed out that the culture of evaluating gisaeng based on the Ming Dynasty's perception of celebrated 'jinü(妓女)' is based on its foundation.

Key words: Qingnilianyuaji(靑泥蓮花記), Meidingzuo(梅鼎祚), 'jinü(妓女)', Critical appraisal, Ming(明) Dynasty, Social perception, Original classification

이 논문은 2020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5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